

야한 부탁!

아랫도리 가벼운 남동생에게
야한 부탁을 해봤습니다.

cv. 이치쵸 히라메(一条ひらめ)님

트랙 1

《정반대인 동생이 집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음, 누나.
어서 와~.

음……. 나는 이제 나가려고…….
그쪽은? 일은 어땠어?

……하핫
오늘 도시락?
그거 일에 대한 소감 아니잖아……?
……뭐, 맛있었다면 다행이지만.

응. 수고했어.
저녁에 먹을 밥도 만들어놔으니까 적당히 데워서 먹어.

응……, 렌지 있는 데 놔뒀어~.
지금이라면 아직 많이 식진 않았을 거야.

저번에 좋아한다던 거…….
응, 그거 많이 넣었어.

내 몫은 따로 담았으니까
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퐁
그렇게 좋아하니까 애정을 담아 만든 보람이 있네.

내 요리가 그런 게나 좋아?

잠깐……. 너무하네.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랑 달라?
어딜 봐도 평범하게 가정적이잖아.
……아니라고?

뭐……, 정확히 분량대로 만들려고
계량컵이랑 눈싸움하다가
정작 요리는 태워먹는 누나보다는 더 잘하지.

왜, 좋잖아.
누나의 그런…….
너무 진지한 나머지 바보 같아지는 부분, 난 좋아해.

아, 맞다.
오늘 돌아오는 거 늦을 것 같으니까, 접시만 좀 담가놔 줄래?
응. 잘 때 불 잘 끄고.

클럽 아니라니까……. 늘 하던 아르바이트.

나도 일해야지.
언제까지나 여기 얹혀살 수도 없고 말야…….
미안, 거기 충전기 좀 빼줘…….
고마워.

누나가 팬찮아도 엄마가 시끄럽다고.

‘누나한테 꽤 끼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연락해.

하여간 그 사람은 자기 핏줄인 친아들보다
누나를 훨씬 더 귀여워하는 것 같다니까.

아아, 맞아. 누나 취직 정해져서……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도 그래.
전화로 엄청나게 생존 확인했었잖아.

그때 전화 끊은 뒤에 보고 있었더니
엄마 외로워서 살짝 울고 있더라.

푸핫……. 진짜래도.
이거 비밀이다?
음~ 아무튼…… 문제아인 내가 대학 가깝다는 이유로
누나 집에 기어들어온 거잖아.
걱정되니까 얼른 나가라고 성화야…….

후후......

근데 말야, 누나는......

이제 내가 없으면 안되는 몸이 돼 버렸잖아?

푸하......

왜 당황해?

그러니까..... 얹혀사는 대신

요리에 청소..... 세탁? 뭐 그런 거......

그런 부분은 다 내가 챙겨주고 있잖아?

이제 와서 혼자 사는 건 힘들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건데.

정말 금방 빨개진다니까.

성실하고 숙맥인 누나한테는 자극이 너무 강했나?

그런 상태로 남친이랑 섹스는 어떻게 해.....?

저거 봐, 또 빨개졌다......

말랑 말랑......

새빨개. 점점 뜨거워진다......

.....음? 뭐야?

놀리는 거 아닌데.

아니, 농담. 완전 놀리는 중ㅋㅋ

.....푸훗

아~ 그래, 그래. 이제 갈게요.

네에~.

든든한 동생님이 돌아오기 전까지 얌전히 집 보고 있어.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트랙 2

《심야의 귀가》

(AV 에서 나오는 신음 소리)

.....다녀왔습니다~.

.....누나~?♡

뭐야? 혼자 몰래 야한 거 보는 거야?

푸핫,
너무 놀라잖아.

‘갑자기’ 아닌데?

제대로 ‘다녀왔습니다~’ 하고 말 걸었어.

눈치도 못 챜 정도로 정신없이 보고 있었던 거야?

헤에.....

옛날에는 드라마 키스신만 봐도 부끄러워했으면서.....

한밤중에 몰래 AV 감상이라니..... 응~, 어른이 됐구나.

저기, 어떤 거 보고 있어?

사실 꽤 하드한 걸 좋아한다거나.....

뭐야, 이거 내 거잖아.

.....동생이 보는 AV 로 자위라니..... 엉큼해~♡

음~?

아니라면 뭔데?

AV 보고 할 일이 자위밖에 더 있어?

.....하아. ‘공부’라니.....

옛날부터 성실한 건 알고 있었지만.....

SEX 까지 그런 느낌인 건가.

……저기, 공부라고 했잖아. 이걸 '예습'이야?
아니면 복습?

……남친이랑 벌써 했어……?

……헤에, 역시 했구나.

아…… 혹시 무슨 소리 들었어?
서툴다든가.

흐음…….
말하기 싫으면 상관없지만.

나 이제 잘 거야. 방해 안 할 테니까 힘내.

……아, 그 DVD,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공부’가 끝나면, 꼭 돌려줘야 한다?

트랙 3

《동생의 아르바이트》

……(하품) 후아암~……. 으응~ 좋은 아침.

어제는 어땠어?
‘공부’는 잘했어~?

……그보다 뭐야, 아침부터…….
정좌하고 그러고 있으면 좀 무서운데요~?

응?
아, 미안. 메세지 왔다.

……뭐야, 누나였어?
URL 보낸 거야?
이거 보면 돼?

…….

으음……. 뭐야 이게. 블로그……?

‘유부녀 마땅의 오프떡 일기’…….
‘오늘은 연하의 적발군과 떡치기……,
너무 가서 몇 번이나 시오후키 해버렸다♡’…….

……, …….

……아……. 그런 거구나…….
그래, 들켜버렸네.

맞아?
그 '적발군'이라는 건 나를 말하는 거야.

일단 익명성에는 신경 쓰고 있었는데 말이지.
너무 하느라 피곤해서 자는 틈에 찍혔나 보네…….
전혀 눈치 못 챘어…….
……그보다 남의 자는 얼굴을 보통 그렇게 멋대로 올리나?

딱히……? 그냥 아르바이트일 뿐이야.

남편이 상대를 안 해줘서 외로운 주부라던가~.
남친이 없어서 욕구불만인 누나들 상대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뿐.

그 왜, *파파카츠는 있잖아. 그거의 남자 버전?
마마카츠~…… 뭐 그런?
*젊은 여성이 중년 나이의 남성들과 놀면서 금전적 지원을 받는 활동.

……푸핫
얼굴이 무서워~.
이거 봐, 미간 주름졌다.

괜찮대도. 마마카츠라고 해도 양심적으로 하는 거야.
상대방의 돈을 갈취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호텔비 별도로 2 만,
하룻밤 자고 나면 그걸로 끝. 리피터 거절.
물론 피임도 확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

할 이야기라니……. 또 뭐가 남았어?
뭐야……? 설교하려는 거면 빨리 끝내.
누나의 그런 괴로운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아.

……확실하게 말해.
나한테…… 환멸을 느꼈다든가,
……불쾌하다고 하면…… 바로 여기 나가줄 테니까…….

……아니면 뭐야……?

……응. 음…… 아아…….
그렇구나. 누나, 못 가서 고민하고 있었구나…….

음?
……뭐? 가는…… 뭐라고……?

아니……. 뭔가 지금…… 누나가 나한테……
‘안에서 가는(*나카이키)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역시 잘못들은 거겠지?
*질 내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

……아……‘길게 사는 방법’…… 뭐 그런 거야?
그런 거라면 나보다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

진짜…… ‘나카이키’ 쪽이었구나……
……‘부끄러움을 참고 하는 평생의 부탁’?
내가…… ‘아랫도리가 가볍다는 걸 아니까 하는 부탁’……!?

일일이 따라하지 말라니, 아니.
일단 정리 좀 해야지, 나도 뇌 처리를 못 따라가겠다고…….

그야 당연히 내가 놀리는 일은 있어도
먼저 야한 부탁을 받을 줄은…….
너무 예상을 뛰어넘어서 머리가 어지러워…….

하아…….
그러니까 어두운 얼굴 하지 마.

……그런 우는 얼굴로 부탁하는데 거절할 리가 없잖아.
부끄러운 걸 참고 나한테 부탁할 정도로 고민했던 거지?

자, 계속 그렇게 앉아 있지 말고 소파로 가자.
일단 무슨 사정인지 좀 더 자세히 들려줘. 응?

트랙 4

《섹스 공부》

음……. ……., ……그렇구나…….

아…….

즉…… ‘남자친구와의 섹스로 도저히 가질 못해서
두 사람은 헤어질 위기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AV 로 공부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체험담 같은 것도 알아보다가
아까 그 유부녀 블로그까지 갔던 거네.

아아……. 내 뒷계정도 찾았어?
하여간 성실하긴……. 감탄스러울 정도야.

음…….

누나는 옛날부터 연애 같은 거에 흥미 없어 보였고
섹스도 지금 남친이 처음이잖아.

신경 쓰지 않아도

익숙해지면 조만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허? 뭐야, 그게.

지가 못하는 주제에 상대 탓을 하다니…….

개 어이 없네.

누나 잘못 아니라니까.

뭐……. 하긴 여자 쪽이 긴장하면 가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너무 좋아서 몸이 굳어버린다니 오히려 귀엽잖아.

나였다면 긴장 같은 건 완전히 날아가버릴 만큼 기분 좋게 해주고
만약 못 간다 해도 헤어지는 일은 절대 없겠지만 말야.

.....

지금 흐름에서 그 소리하면 평범하게 쇼크받는데요.
‘엔 군이 상대라면 긴장하지 않을 텐데’라니.

왜~? 나는 안 좋아하니까?

.....동생이라서 괜찮아? 흠.

하긴..... 서로의 알몸도 이미 봤으니까.

아니, 어렸을 때.

뭐랄까..... 내가 아직 혼자 목욕하는 거 무섭다고
‘누나랑 같이 하는 거 아니면 싫어~’ 그러면서 떼냈잖아.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둘이서 서로 씻겨줬던 건..... 어렴풋이 기억나.

응. 아무튼 누나 부탁은 알겠어.

나카이키로 기분 좋아질 수 있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줄게.

.....그럼.....

바로 본론인데.....

.....지금부터 여기서, 섹스할까?

키스..... 해도 돼.....?

.....,

.....으뵘.

왜, 왜 거부하는데..... 그럼 언제 해?

뭐? 실전은 빼고!?

그런 소린 못 들었는데요~.

섹스를 안 하고 어떻게 가는 법을 알려주냐고.

하아……. 역시 누나는 한결같이 성실해.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로 설명하는 건 어려울 거고…….
음…….

……그럼 손 내밀어 봐.

뭘 움짚거려.
손 정도는 만져도 되지?
남매잖아.

응. 가볍게 주먹 쥐듯 쥐어봐……. 그렇지…….

예를 들면 누나의, 이 손……. 이걸 보지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의…… 여기.
이 부근이 클리토리스.

음……. 직접 할 때는 어디를 만져?

……흐음, 클리로는 갈 수 있어?

……그렇다면 일단은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클리랑 구멍 주위를 쓸듯이…… 천천히 왕복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응…….

……젖기 시작하면, 이 부근,
……짜악, 하고 살짝 열어서…… 클리를 벌리고…….
애액을 떼서 바르는 거야.

구멍 안에서 가고 싶어도
우선은 차분히 클리를 만져주면서……
스위치를 켜줘야 해.

그래. 이런 느낌으로.
닿을 듯 말듯 하게…… 애태우면서…….
젖어드는 기분이 들도록
클리를 살살 만져주는 거야.
이렇게…… 상냥하게…….

……응……? 뭐야.
이거? ……여기 간지러워?

엄지손가락, 사타구니 쪽만 살살 만져주는 건데.

후후.
클리는 이제 괜찮아?

흐음……. 그럼 다음. 구멍 안에 손가락…… 넣을게?
음…….

그렇게 세게 쥐고 있으면 안 들어가.
힘 좀 빼, 손에 힘 풀어봐.
그렇지…….

안쪽은…… 배쪽 이 부근……. 이렇게 해서,
소리나게…… 만져주거나…….

조금 더…… 안쪽까지 넣고…….
손가락 끝만 구부려서 긁어주거나…….

응, 잠깐만 이거.
안쪽까지 넣으면 손끝이 나와버리잖아.

이거 봐.
누나 손으로는 내 손가락…… 다 못 잡아.

……뭐, 딱 좋은가. 이대로 할게.
손끝 움직임 보이지?
꾸욱, 하고 안쪽에 닿으면 첫 마디만 구부려서……
……자궁구 주위를…… 동글동글~ 하고 부드럽게…….
이런 느낌이려나~. 자, 잘 봐……?
안쪽에 기분 좋은 곳을, 이렇게 마사지해주는 거야…….

.....음......

저기, 누나......

뭔가, 손바닥..... 살짝 땀 나는 것 같은데?

봐봐...... 축축해......

긴장하고 있어?

내가 상대라면 긴장하지 않는다며~?

혹시 손뿐만 아니라.....

보지도 이미 젖은 거야?

아까부터 다리가 계속 움찔거리는데.

.....저기, 남친이랑 하는 섹스에서 긴장하고 싶지 않지.....?

그럼 남자 손으로 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응? 나로 예습, 해보자......

....., 음...... (귀 핥기)

후후...... 귀 엄청 약해.

옛날에 장난으로 '후우' 하면 진짜 화났는데......

사실 그때도 느꼈던 거지?

지금도 봐...... 음......

후후, 움찔움찔..... 느끼잖아......

하....., 응...... (귀를 핥으면서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다)

하아...... 키스는 안 됐는데, 이건 저항 안 하네.

귀..... 너무 기분 좋아서 저항 못하겠어?

괜찮아?

소파에서 동생한테 떠밀려서......

앞으로 더 야한 짓을 당할 텐데♡

음...... (목덜미, 귀 핥기)

안심해…… 이건 공부니까…….
나카이키하는 방법, 몸에 확실하게 알려줄게…….

하아…… 그럼 우선은 보지 먼저 확인해 볼까.
아래, 벗어봐…….

아…… 팬티 귀여워~…….

속옷은 자기가 한다고 늘 빨래 못하게 했잖아…….
그래서 어떤 걸 입고 있는지 궁금했어.

티셔츠 당겨서 가려도 소용없어.
더 가까이서 보여줘.
자……. 다리 활짝~.

부끄럽지 않다니까. ‘공부’잖아?

착하지. 다리 벌리고…….
한쪽 다리는 등받이에 걸고…… 응.

팬티 어떻게 돼 있을까~……. 으음~…….

……아…….
후후……. 미끌미끌…….

역시 아까 그걸로 젖은 거야?
아아……, 공부한다기에 진지하게 알려줬는데…….

누나는 야한 상상하면서
보지를 이렇게나 적시고 있었구나…….
봐봐, 이렇게 됐어.
귀여운 팬티가 축축히 젖어서…… 후후……

아, 근데…… 이거 나카이키 공부잖아……?
제대로 자지 먹을 준비를 마친 거니까 오히려 대견하다고 해야 하나…….

성실한 보지 기특해, 기특해.
상으로 클리 쓰담쓰담 해줄게…….

음……. ……클리는 이쯤……?
팬티가 애액 때문에 자꾸 미끄러지네…….

……하아……. 소리 야해…….
톡 튀어나온 클리를~…….
미끌거리는 팬티 위에서 만져지니까 어때?

자자, 손가락 움직이는 거 제대로 봐야지?
이렇게…… 팬티 위에서 손톱으로 긁어주면…….
아~ 후후…… 기분 좋구나…….

굉장해…….
미끌거리는 게 엄청 나왔어…….
……하아, 하아…….

음……. 저기, 보지 핏고 싶으니까 다리 더 벌려봐…….

싫은 게 어딴어. 핏을래.
자아, 벌-리-세-요.
……웃, 응…….

하아…….
그렇지. 그대로…… 직접 무릎 뒤쪽 잡고 있어.

아아…… 어찌지. 너무 야해…….
팬티 젖은 거 보여주듯이 천박하게 다리 벌리고…….
아하하. 최고야.
응……, 누나는 양손을 못 쓰니까
보지는 내가 열어줄게…….

모처럼 귀여운 팬티 입었으니까…… 이대로 핏고 싶어…….
이렇게…… 좌우로 잡아당겨서…….

아~.

팬티에서 울컥울컥 새나온다.....

.....웃, 핑장해...... 팬티가 축축해서 그런지.....

보지 여니까 찰싹 달라붙어서.....

야한 색이 비치고 있는데......

하아..... 누나 보지 너무 음란해......

늘 이런 야한 색이야?

아니면 흥분해서..... 충혈된 거야?

어허, 다리 닫으면 안 되지.

제대로 공부에 집중해.

.....착하다.

저기, 여기 말야. 남친은 어떤 식으로 훑아줘?

.....흐음...... 클리토리스.....?

.....푸흠

쭉쭉 빠는구나.

헤에......

이런 느낌.....?

.....,팬티 너머로 하는 건 처음이야.....?

보지 활짝 벌린 채로, 클리 흰히 드러내고......

누나한테서 나온 애액이랑..... 내 침으로 엉망이 된 팬티째로......

음...... 훑아지는 거..... 기분 좋아.....?

웃..... 하아, 하아......

우와......

팬티 안에서 보지 구멍 벌름거린다......

안에 비쳐보이는 거 진심 너무 야해......

이쪽도 훑고 싶어...... 음......

.....아하하......

팬티가 너무 흥건해서 자꾸 미끄러지잖아 이거......

응...... 봐..... 생으로 혀가 들어가 버렸어......

혀로 안에 빨아주는 거 언제.....?

.....음....., 이거 좋아.....?

하아...... 누나 보지..... 웃.....,

더 안쪽까지 빨고 싶어......

후..... 으음..... 누나..... 클리 엄청 움찔 거리......

외로워졌어?

클리 쓸쓸해.....?

으응...... 근데 지금은...... 보지 안에서 놀고 싶은데......

훗, 어쩔 수 없지......

그럼 외로움쟁이 클리는.....

손가락으로 살살 만져줄게......

음......

웃....., 아아, 도망가지 마.음.

클리랑 보지 같이 하는 거 기분 좋지? ...,

하하, ‘안 돼, 안 돼’.....? 웃...... 목소리 엄청 야해.

.....하....., 뭔가 같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웃..... 무서운 거 아니니까.....,

기분 좋은 곳에 집중해.

내 혀 느끼면서..... 음......

응, 웃.....!

.....응, 음...... 음......

후후.

하아, 하아.하아......

하아...... 미안.

나도 모르게 열중해서 보내 버렸네.

나카이키 연습이었는데.

지금 건 클리였으니까 노카운트.

음...... 보지가 아직 움찔움찔해......

애썼네~.

하아......응...... (부드럽게 쿤니)

트랙 5

《소파에서 나카이키 레슨》

(소파에 다시 앉는 엔스케)
웃차.

이제 팬티도 벗고 내 무릎으로 와.

응, 이리 와~. 소파에 앉아서 하자.
맞아…… 마주보고…… 내 위에 걸터앉아.

……, 푸후.
뭔가 이거…… 무릎 위에서 누나 안고 있으니까
엄청 연인 같아.

……저기…… 키스…… 하고 싶어…….
해도 돼……?
하아…… (황홀한 듯 키스)

……누나랑 키스해버렸다♡

역시…… 너무 귀여워…….

후후.
얼굴이 완전히 녹았네.
스위치가 켜졌구나…….

그럼 그 느낌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 공부할까?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알려줄게.
저기, 좀 더 끌어안아봐.

.....옴지.....

내 어깨에 턱 올리고, 짜악 껴안아.

엉덩이는 좀 더 들어볼까?

.....아.....그렇지, 잘했어.

응. 껴안고 하는 게 더 실전에 가깝겠지?

대면좌위라는 걸로.

이렇게..... 끌어안은 채로

등에서..... 허리 쪽..... 쓰다듬으면서.....

.....귀여운 엉덩이 골을....., 스윽 쓰다듬으면.....

.....음..... 아. 보지 발견~♡

이 자세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보이는데.....,

감촉이 너무 야해......

하아..... 미끌미끌.....

가운데 손가락으로 벌름거리는 틈새를 따라가볼게....., 응.....

입구느은♡이쑤인가~?

음..... 웃...,

.....아....., 들어간다......

보지 너무 뜨거워..... 와아.

느껴져.....? 아까 내가 활랐던 여기에.....

중지, 두 번째 관절 정도까지 들어갔어......

후후...... ‘응♡’하고, 귀여운 목소리가 새 나왔는데?

아프지 않아.....?

음.....(귓가에 키스)

우선은..... 누나가 기분 좋은 곳 알려줘......

.....여기....., G 스왑은.....? 느껴져?
.....하아......

음..... 엉덩이쪽 벽..... 빙글빙글 만져주는 건.....?
.....이 근처..... 언제?
기분 좋지 않아? 여기 이쯤.....
응..... 기분 좋지......

하아..... 딱 적당히 풀어졌네......

더 안쪽까지..... 넣을게.....,

응.....♡
.....튀어나온 여기..... 자궁구 주위..... 부드럽게..... 부드~럽게.....♡

.....,

아까..... 누나 손으로 공부했을 때의 움직임..... 이야.....,
손끝만..... 안쪽에서 꺾꺾 움직이는 거..... 보지로 느껴지지?

허리..... 움찔거리고 있어......

.....저기, 내 손가락이..... 자지라고 생각하고
직접 기분 좋은 곳에 닿게 해봐.

그렇지....., 엉덩이 야하게 움직여서......
(귀 활기)

.....,음.....?아직은 어려운가......

그럼 손가락 두 개로 해서
안쪽 부분 찢어줄 테니까..... 직접 클리 만져볼래.....?

....., 웃..... 자아......
아..... 살짝 좁긴, 한데..... 약지도..... 조금씩 들어간다......

....., 하아. 봐봐, 들어가 버렸네?♡
으응..... 안쪽 엄청 보글거려.....
클리도 같이 비비면서 직접 기분 좋게 해줘.

(쾌감을 참고 껴안는 여주)

음..... 후후.
왜 그렇게 꼭 껴안아?

안쪽..... 집요하게 괴롭힘당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엄청 귀엽긴 한데
이래서는 클리를 못 만지잖아.

.....음.....
자, 그럼 내 거, 써도 돼.

내 여기.....♡
아까부터 딱딱한 게 배에 닿고 있지?

.....품. 얇은 티라서 형태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네.....
그보다 누나 애액으로 이미 젖어 있고.....
내 쿠퍼액도 섞여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기..... 양손은 이대로 목 껴안아도 되니까
내 자지에 클리 문질러서..... 기분 좋게 해볼래?

자, 보지 안쪽도..... 휘저어 줄 테니까.....

응.....
그렇지..... 엉덩이 흔들면서..... 클리 문질러봐.....

....., 응....., 좋아..... 잘하네..... (귀 빨기)

아..... 티 너머로 보지, 감촉..... 웃.....
너무 좋아.....

……하아……누나도 기분 좋아?
허리 움직임…… 점점 야해지는데…… 웃…….
(귀 훑기)

아아……
동생 품에 매달려서…… 보지까지 쭈셔지면서,
필사적으로 클리 문지르는 거…… 대박이야…, 웃…….

가슴도 계속 눌러오고 있고.
웃…… 하아… 아……, 음…, 미안,
나도 조금 허리 움직인다, 이거…….
……웃, 보지에 박고 싶어서 허리가 막 움직여…….

이거, 봐……. 웃…… 클리가 기분 좋으면 보지가 딱 조이잖아……?
그때…… 안쪽…… 응……, 여기.
여기에 의식을 집중해서…… 하아…….

배에 힘주고…… 엉덩이 구멍도 파악 하고…… 힘 넣어봐……?
……웃…… 응…… 그래, 그거…….
자궁구로, 내 손끝을 짜아악 빨아들이는 느낌으로…….

……웃, 아……. 그렇게……. 잘하고 있어…….
잘 빨고 있어…….

하아…… 아…… 이거, 너무 야해…….
안쪽이 별개의 생물처럼 달라붙어…….

손가락이 아니라 생 자지였으면……
이미 정액이 빨려들어갔을지도……♡

……웃……, 이런 음란 보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다니……
남친 씨가 섹스에 재능이 없네…….

……웃, 응……. 그래…… 좀 더…… 허리 흔들어…….
보지 안쪽 쭈셔지면서…….
클리도 같이 기분 좋아지도록…… 웃…….

응…… 가? 갈 것 같아……?
괜찮아, 꼭 안아줄 테니까…… 자아……,
더 찢어줄게……, 응…… 갈 것 같구나.
가도 돼. 좋아.

옳지……, 보지가 계속 가고 싶다고 울고 있네…….
소리 내서…… 웃, 그렇지……, 가 버려…….
자아…… 가도 돼…….

(궂가에서 여주의 절정을 재촉한다)
보지 안쪽, 기분 좋네……, 갈 것 같지……?
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웃…….

……, 하아…, 굉장해……, 손가락 엄청 빨아들이고 있어…….

지금, 가서…… 움찔거리는 곳……,
찌잉, 하고 기분 좋아진 여기…….
안쪽 여기…… 잘 기억해 뒀…….
여기……. 여기야……?

……응…… 잘했어요……♡
상으로 키스……♡

트랙 6

《벗어날 수 없는 실전 섹스》

(이어서, 소파에서 대면좌위 자세)

……하아…….

키스 기분 좋아……

봐봐…… 발기가 가라앉질 않아…….

……그보다 대박. 내 옷 좀 봐.

보지액으로 색이 바뀌어서

내가 썬 것처럼 돼 버렸잖아…….

혹시 시오후키 했어?

후후……. 수고했어. 음~.

(기쁜 듯 키스)

응.

괜찮아. 나 씻고 올게.

그보다~

한 번 더 꼭 안고 싶어…….

음……. 하아…….

(호흡 소리)

……음……?

누나 냄새 맡고 있어.

……싫어?

……하지만 누나도 내 냄새 좋아하잖아.

아니, 좋아하면서.

자아, 꼬옥…….

……음……, 후후…….

얼굴 파묻는 거 귀여워…….

……좋은 냄새 나……?

후후…… 음…….

간 뒤라 어리광부리고 싶어졌어?

……하아…… 뭔가 이려고 있으니까……

옛날에 같이 잤을 때 생각난다…….

누나가 해주는 팔베개……, 부드러워서 좋았는데…….

(귀에 키스)

…, 음……. 저기…… 어쩔래?

나카이키 공부. 계속할래……?

(유혹하듯 목덜미에 몇 번이고 키스)

……넣고 싶은데.

아까부터 계속 받기 상태야. 자…… 만져봐…….

손 넣어서…… 직접…….

응……. …, …….

……후후, ……크다고?

남친 거랑 달라?

이 단단한 거…… 보지에 넣어보고 싶지 않아?

갔을 때 쩡~ 했던 안쪽의 거기……,

이걸로 푹푹 찔러주면 기분 좋을 텐데~?

(긁가, 목덜미를 핥는다)

……왜 안 돼……? 남매라서 안 돼?

에이~, 이미 이런 야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음…….

들어봐…… 이 야한 소리…….

누나 보지는 두꺼운 걸 넣고 싶다고 침을 흘리고 있잖아…….

엄청 움찔움찔~ 거려……. 자지 빨리 넣어줘~ 하고…….

내 자지도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움찔거리는 거 느껴지지……?
……웃……, 봐봐…… 선단이 딱 달라붙었어…….

저기, 내 뒷계정 찾았으면…… 내가 올린 영상도 봤어?
응. 섹스 촬영한 거…….

누나들, 보지에 자지 물고서
굉장히 기분 좋아보였지……?
울면서 혈떡이고…… 허리 엄청 흔들어대고…….

그거 올려놓으면 내가 찾지 않아도
계속 DM 이 오더라…….
‘저도 해주세요’…… 하고.

누나도 울 정도로 기분 좋은 섹스…… 해보고 싶지 않아……?
좀 더 야한 몸이 되면
남친도 좋아할 거야…….
(키스)

저기…… 넣고 싶어…… 섹스하고 싶어…….
……누나……, 오늘, 안전한 날이지……

……알고 있어. 생리대 사다두는 거……
누가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응……?
생으로 섹스하자…….
제대로 밖에 쌀 테니까…….

팬찮아……, 바람 아니야.
남친을 위해 나카이키를 배우고 싶은 거잖아?
이건, 공부 섹스니까 문제없대도…….

……음…… 하아……. 저기 나…… 더는 못 참겠어.
넣을게, 넣는다……. 응? 생으로 섹스하자……♡
하…, 아……. 힘 좀 빼봐……. 천천히 숨 내뿜고…….
……웃… 후우……. 아…….

...하아..... 좁아...... 처녀같아......
대박.....웃, 기분 좋아......

하아, 하아...... 응..... 아직 절반이야.

음~ 평소랑 달라? 힘들어?
남친 거는..... 이 근처까지 밖에 안 왔었구나......
그래애.....?

내 건 말이지....., 아까 손가락으로 기분 좋아졌던 곳보다
더 안쪽까지 들어갈 테니까..... 보지 좀만 더 힘내~......
응..... (귓가에 부드럽게 키스)

으음..... 조금씩 들어간다...... 웃......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힘내?
심호흡하자......

자. 들이마시고~......
내뱉고...... 응..... 하아, 웃......
쿵... 아......
아..... 빠듯하게....., 들어간다......
아..., 기분 좋아......
하아, 하아...... 아...... 조이지 말라니까..... 힘 조금만 더 빼보자?
(달래주듯 키스하며 삼입)

후우.....,전부 들어갔다.....♡

.....음.....♡ 누나랑 진짜 섹스하고 있어......

차지, 안쪽에 가득 들어찬 느낌은 어때?

안쪽 여기..... 손가락으로 핀포인트로 하는 것도 좋지만
굵은 자지로 파아악 들어차서.....
기분 좋은 곳 전부 쓸리는 거, 훨씬 기분 좋지?

하아..... 나도 누나 보지..... 달라붙어와서 위험해......
생으로 하는 섹스 처음이니까..... 바로 쌀 것 같아......

누나랑 언젠가 하고 싶다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생각해왔어…….
사실은 좀 더……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나 없이는 살 수 없이 만들어서……
느긋하게 넘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푸훗.
설마 누나한테 그런 야한 부탁을 받을 줄은.
진짜 예상 밖이었어.

작은데다 서투르기까지 한 남친 덕분인가…….
아니…… 오늘로 헤어질 거니까…… ‘전’남친…… 이겠지.

……흐음?
당연히. 헤어질 거잖아?
빨리 헤어져 버려.

설마…… 동생이랑 바람피우는 거,
남친한테 비밀로 할 생각?

하하.
‘남친을 위한 공부’라니…….

그럴 리가 없잖아.
누나도 알고 있었으면서.

봐…… 이렇게, 보지를 잔뜩 적신 채로…… 웃,
내 자지를 물고……, 이런 게 공부일 리가 없잖아?

섹스지…….
……웃…… 둘이 함께 기분 좋아지기 위해 하는 섹.스♡

하아…… 음……, 누나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지?♡

보지가 너무 기분 좋아서 그대로 휩쓸린거잖아……♡

후후.

싫어. 못 도망가.

지금 그만두면, 안이 욕신거리어서 힘들 텐데……?

자아, 허리 짹 누르고…… 웃……, 끌어안고서……,
아래에서 퍽퍽 찢어줄게……♡

아…… 흔들리면서 운다…….

귀여워……♡ 너무 좋아… 누나……♡

더 좋은 곳 박아줄게…, 웃…….

(귀 활기)

하아…… 안쪽 푹푹 찢르는 거 기분 좋구나……?

남친 걸로는 닿지 않았던 여기……♡

응……♡ 기분 좋지. 나도 기분 좋아…….

누나 보지 좋아…… 기분 좋아…… 으…….

……하아… 웃……, 누나는? ……내 자지 좋아……?

응? 안쪽 너무 좋다고? 갈 것 같아……?

하아……, 응… 좋아…… 동생 자지로 안에서 가는 거야…….

아…… 벌써…… 완전히 풀려서 질퍽질퍽해~♪

……웃, 하아……, 이제

격렬하게 해도 기분 좋구나…….

자지가 너무 좋아서 야한 목소리 계속 나오네…….

봐…… 이렇게 박으면

‘응♡ 응♡ 응♡’ 하고…….

하아…, 좋아…… 웃……, 야한 목소리 좀 더 들려줘…….

(귀 활기)

저기…… 나도, 이제 쌀 것 같아…….
응…… 후…….
하아……, 누나도 여기, 안에, 손가락으로 갔을 때 떠올려봐.

옴지……, 엉덩이 구멍 파악 조이고……,
보지로 생 자지 짹 물고서
안쪽에 육신거리는 여기… 기분 좋은 곳에…… 자아,
이렇, 게…… 자지 푹푹 넣어주면……♡

아…… 정말, 최고야…….
사랑이 있는 섹스는…… 이렇게나 기분 좋구나……
응… 웃……. (격렬하게 키스)

웃…… 누나……?
이제, 가려고 하네…….
보지가 출렁거리면서…… 갈 준비하고 있어…….

……웃…… 헉, 헉…… 헉,
……나, 도…… 진한 게 올라오고 있어…….
안에 내보낸다? 팬찮지……?

싫지 않으면서……,
보지는 정액 갖고 싶다는데……?

아아…… 웃, 안에, 쌀 테니까……
자궁 입구, 제대로 활짝 벌리고 있어…….
배 안에 내 정액 들어간 거 느끼면서, 가… 웃…….

응…… 누나…… 좋아, 좋아…….
좋아해…….
갈게…… 간다…, 앓,
간다…… 간다, 간다, 간…… 다…… 웃……,
……웃 ……나, 와…… 웃……. 으…….

…, …웃…….
……아……, 보지… 굉장해…….
가고 있어……. 누나…….
아…, 아…….

음……. (키스)

하아, 하아…….
아……, 응……, 아직도 조이는데……?
……선단, 엄청 빨아대고 있어……♡
하아… 미치도록 좋아…….
(사랑스럽다는 듯 키스)

후우…….
……어땠어?
자지로 안에서 절정을 맞은 감상은…….
아직도 옥신옥신해?

음…… 입을 다물고, 왜 그래?
말 좀 해봐…….

자아, ……응, 여기……?
아, 소리 나왔다……♡ 아직 기분 좋은 거구나.
……흔들지 말라고……?
……푸후, 허리 부들부들 떠는 거…… 귀여워…….
(귀에 키스)

마지막에 갈 때……
울면서 필사적으로 허리 흔드는 거 진짜 귀여웠어…….
응……, 다음엔 박는 거 짝게 해줄래……?
누나 일할 때 반찬으로 삼고 싶어…….

음…… DVD?
아…… 그거 말이지. 맞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 방송 같은 것도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못보는 게 불편하긴 한데.
……음…… 후후…….
여배우가 누나를 닮아서 그걸로 엄청나게 뻘쮸…….

맞아.
누나를 범하고 싶은 걸 계속 참고 있었어…….

하아…….
같이 살면서도 손 못대는 거, 상당히 힘들었다고.
목욕한 뒤에도 노브라로 어슬렁대거나 하고.
평범하게 젓꼭지 다 보이거든?
아~ 그리고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대로 소파에서 잠들기도 하고.

솔직히 이대로 강간해 버릴까?♡ 하고 몇 번이나 상상했지만……,
누나에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쌓인 성욕을 발산시키려고
뒷계정으로 누나랑 분위기 비슷한 여자 찾아서 미친듯이 해댔어.

누나도 이런 식으로 신음하려나…… 뭐 그런 거 상상하면서…….
대박, 나 완전 기특하지 않아?

응…….
하지만…… 진짜를 알아버렸으니까 더는 못 해.
누나가 아니면 안 돼…….
……저기…… 남친이랑 헤어지고 계속 내 옆에 있어줘…….

응……? 왜 떠는 거야?
땀 흘려서 추워?

아니면……
내가 무서워?

……다행이다.
누나한테 거절당하면 나…… 살아갈 수 없어……. (귀 핏기)

뒷계정 들켰을 때도……
나가라고 했다면 지금쯤 어디선가 죽었을지도……, 응…….
(매달리듯 목덜미를 깨문다)

.....하아......

하지만 내가 누나를 좋아하는 거랑 똑같이,
누나도..... 남친한테 폭 빠져있는 거지?

동생에게 섹스에 관한 상담을 할 정도로 좋아한다니.....
솔직히 그 남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지만......

누나가 마음 정리할 때까지는 기다려줄게.

괜찮아, 누나는 무조건 날 선택할 테니까.
나랑 한 섹스가 이렇게 기분 좋다는 걸 알아버렸는걸?♡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도 몸은 절대 잊지 않으니까.

빨리..... 마음도 몸도 나만의 누나가 되어줘.....♡
(키스)

보너스 트랙 《섹스 촬영 영상 편지》

(떠칠 후)

.....후..... 누나.....
또 간 거야.....?
(귀 활기)

응..... 아아.....
절정 직후 보지 기분 좋아.....
하아..... 아, 응.....

음.....? 아직 더 할 수 있어.
누나가 야한 게 잘못이니까..... 책임져.
자, 아..... 웃, 보지 더 조여.
자지 오물오물 먹어야지.....

.....하핫♡
아... 좋아..... 행복해.....

ㅋㅋ. 정상위로 딱 붙어 있는 거 맘에 들어?
누나 몸, 완전히 자지만 찾는 음란한 몸이 돼 버렸네.

아직 남친이랑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내 자지를 못 잊어서
벌름벌름 유혹해대는 음란 보지.....♡

옛날 누나의 모습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데.....
성실하고 쑥맥인 타입이
섹스에 빠지면 위험하다는 말이 진짜였구나.....

.....웃....., 남친 씨도 말야.....,
누나가 야해지니까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지?
다행이네. 좋아하는 남친한테 사랑받아서.....
오늘도 러브 호텔에서 몇 번이나 했어.....? (귀 활기)

.....후후.
근데..... 작고 조루인 자지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곧바로 집에 와서 나한테, 이렇... 게, ...응.....
안쪽까지, 넣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는.....
보지 움찔거렸지~?♡
....., ..., 응.....♡

마음은 아직..... 남친이 좋은데.....
죄책감에 매일 밤 울고 있으면서......

몸은 이제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건 어떤 기분.....?

(귀 훑기)

하아.....
.....저기, 언제 헤어질 거야?
얼른 버리라고.

그딴 놈 때문에 우는 누나.....
응..... 보기 싫어.....
(키스)

그딴 놈이라고 해도 난 본 적 없지만.

아, 맞다.
좋은 기회니까..... 인사하게 해줘.
누나가.....
내 길로 양양 우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이대로 섹스하는 거 찍어서..... 동영상 보내볼까?
.....웃,, 그래, 그래...... 날뛰지 마.

후우...... 스마트폰, 스마트폰~.....♪
찾았다.....
....., 으음......

자, 찍는다~.
이어진 부분 잘 보이게 다리 벌려봐~.
(영상 촬영 개시)

안녕하세요, 남친 씨.
누나가 항상 신세지고 있어요~.
동생 엔스케입니다아~.

자, 누나도 인사해야지~.

.....아하하.
너무 느껴서 말을 못 하겠어?

정말~. 쾌감으로 울먹이는 거 완~전 귀엽긴 한데♡
이런 영상으로는 남친이 뭐가 뭔지 모르잖아.

음... 어쩔 수 없네.....
그럼 인사하는 대신 우리들의 사랑 넘치는 섹스를 보여줄까?

자아.....♡
입 벌려.....♡

벌려-. (가볍게 뺨을 두드려 열게 한다)
아앙..... 음.....♡ (끈적하고 달콤한 키스)

하아.....♡ 누나랑 하는 키스 좋아.....
자지가 움찔거려......

.....아, 정말,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거 번거로워.
잠깐만 기다려~.

....., 음, 좋아...... 이 정도 위치면 되겠지......

누나~, 이대로 목에 손 둘러볼래.....?
안아줄게. 음......

봐봐, 저기. 제대로 세팅해놨어.....
인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알몸인 우리 모습이 그대로 보이니까..... 뭔가 흥분되네.

‘싫어’가 아니지.
남친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 결과,
제대로 보고해야지?

봐, 알몸으로 나한테 꼭 매달리는 거 귀여워.
둘 사이에서 가슴 눌린 것도 야해~......

근데 이러면 자지가 들어간 모습이 안 보이니까.....
배면좌위로, 자지를 양~껏 물고 있는 보지,
남친한테 보여주자♡

자, 뒤로 돌아봐. 자지는 넣은 채로.
빠지지 않게..... 연결된 채로 방향만 바뀌서......

응....., 옹지, 한번 누워서.....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이쪽으로 등 돌려봐......

..., 응....., 아아, 잠깐,
힘내서 보지 안 조이면 자지 빠진다.....?
.....웃, 아... 좋아..... 후후.

(배면좌위 자세로)

하아..... 잘했어요.

보지가 너무 미끌거려서 순간 빠져버렸네.
쭈룩, 하고.
음..., 그래도..... 애액이 쭈욱~ 하고 늘어나서
자지랑 이어져 있었으니까..... 세이프인 걸로.

자, 다리 M자로 만들어서~.....,
야한 보지에 자지 박힌 모습 보여줘.

.....퐁......
야해라~.
부끄러운 듯이 고개는 돌리고 있는데.....
보지는 훨씬 다 드러나 있고......

아~ 이거 좀 더 큰 화면으로 보고 싶어.....
나중에 PC로 보내서 같이 돌려보자♡

응……♡(키스)

후후. 팬찮아.

가슴도 귀엽게 찌했어.

뒤에서 만져줄까……?

음……. 꼬옥……. 조물조물~♪

(귀 활기)

벌써 젖꼭지 단단해졌네…….

뭐야, 팬찮아?

동생한테 가슴 잔뜩 괴롭힘당해서……

야해진 젖꼭지 남친한테 보여도 돼?

안 돼?

음~♡ 그럼 부끄러운 곳 숨겨줄게.

이 야해빠진 젖꼭지……,

툭 튀어나온 끝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응…….

이렇게 젖꼭지를 꾸욱…… 하고…….

가슴속으로 밀어서 넣으면……, 응……,

자, 이제 안 보인다…….

그치……?

이거 봐봐, 젖꼭지, 전부 파묻혔어.

이대로 가슴 안쪽 꺾꺾 눌러도 돼?

응…, …….

아, 소리 나올 것 같아?

가슴 쑤셔주는 거 기분 좋구나…….

으응…… 말랑한 가슴 안에서……

젖꼭지만 단단해진 거…… 귀여워…….

……아아, 좋아, 가슴 쑤시면 보지가 울컥거려서…….

하아…… 기분 좋아……, 나도 자지, 기분 좋아…….

누나…….

(끈적하게 귀 활기)

저기…… 나 지금 허리 안 움직이는데…….
쿨쩍쿨쩍~ 하고…… 이 야한 소리는 왜 들리는 걸까?
응……?
봐봐, 보지 쪽에서 들리는데……?
……응……♡ 아하하
이제 직접 허리 흔들면서 자지를 빨아먹고 있네.

하아… 음…… 후우.
젓꼭지, 안 돼?
……젓꼭지 쭈시는 게 너무 좋아서 자궁이 욕신겨려?

아아…….
카메라 향해서 다리 벌리고
허리까지 젓히고 필사적으로 흔드는 거,
엄청 천박하고 야해……
……, 하아…….

이렇게 음란하게 자지 먹고 있는 거 보면
남친이 깜짝 놀랄 텐데.

아……, 대박……. 하아, 하아…….
자지, 빨아들이는 것 같아…… 웃……. 하아…….
응…, 웃…… 음…….

응……, 벌써 가는 거야?
좋아♡
이대로 젓꼭지 잔뜩 쭈셔줄게……♡

남친이 보는 앞에서 가 버리는 누나…….
내 자지 빨아먹으면서 가 버려…….
자아, 좀 더 안쪽으로 허리 흔들어봐? 웃…….

내 자지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
남친 걸로는 닿지 않는 곳……, 그래…, 아…… 거기,
안쪽 좋은 곳에서…… 동생 자지 꼭 문 채로 가 버려.

자아, 가……, 가, 가, 가…… 가앗…….

……웃…… 아……♡

하아…… 하아……, 아…… 좋아…….
보지 경련하는 거 오싹해…… 웃, 후…….

하아……. 내쪽 봐……. (키스)

후우……. 굉장하네…….
찍히면서 성대하게 시오후키 했네.

아~ 절정 보지…… 아직도 움찔움찔하는 거 귀여워~.
기특하네~, 응♡ 기분 좋았구나?♡ 착하지~♡

아하하.
클리 쓰다듬으니까 또 가볍게 물 쏜다…… 이거 봐,
보지에서 퓨웃…, 퓨웃 하고……. 야해라.

남친 씨 보고 있어~?
누나의 음란 보지,
동생과 하는 섹스가 너무 기분 좋아서 이렇게 됐답니다~.

갈 때의 야한 얼굴도 잘 보셨나요?
너무 귀여워서 사실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헤어지고 난 뒤의 반찬 정도는 제공해줘도 좋지 않을까 하고,
팝. 너무 서비스해줬나?

……자아, 누나?
절정의 여운을 즐기는 와중에 미안하지만
남자한테 작별 인사해줘~.

……하하. 정말…… 침 흐르잖아.
음……. (훔쳐주듯 키스)
좋아…… 깨끗해졌다♡
자, 그럼 카메라 볼까?

“나는 이제 몸도 마음도,
전~부 엔 군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해?
“당신의 소추 따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너무 좋아하는 엔 군의 아이를 낳고 결혼할 거예요”…….

음..... 후후.....
몽롱해서 혀가 꼬이고 있네.
귀엽다니까.....♡

응....., 나도 정말 좋아해, 누나...... 결혼하자......
음...... 좋아....., 좋아해..... 웃...... (정신없이 키스)

하아..... 이제 됐어. 촬영은 끝.

진짜 제대로 섹스하자?

이대로 앞으로 숙여서.....
.....웃, 하아...... 백으로 할게.
엉덩이 내밀어......

.....웃, 응...... 후..... 후웃......

아.....
허리 잡고 퍽퍽 치는 거 기분 좋아~......

누나?
시트 필사적으로 쥐고... 얼굴 파묻고 있네.....,
소리 참는 거야?
하아....., 발정난 암고양이처럼 엉덩이만 내밀고..... 웃,
더 세게 박아줘~♡ 라면서 조르고 있는 거
최고로 야해......

.....응......
(여주 등 위로 쓰러져 밀착 백 자세)

저기....., 목소리 들려줘......
진심 섹스로 안쪽 마구 박히면서,
울 정도로 느끼는 천박하고 야한 목소리 들려줘.....?
응..., 자아..... 웃, 등에 붙어서 하는 것도 좋아하지.....?
밀착해서..... 음... 웃......
전부..... 뭉개질 정도로 질펀하게 박아줄게..... 웃......

응…… 내가 누르고 있어서 못 움직이겠지~.
느끼고 있는 보지, 못 도망가……, 웃…….
……음, 응…… 하아…….

봐…… 이렇게 아슬아슬할 정도로 뽑은 다음……, 응…, …….

귀두로 클리 뒤쪽 비비면서…… 그대로 G 스팟을 지나서……
배꼽 안쪽까지 단숨에 푸욱……, 넣으면……,
…웃……, 아아~……♡
짐승같은 음탕한 목소리가 새나왔네…….

귀여워…… 더 해줄게…….

팬찮아, 이대로……
짓눌러서 움직이지 못한 채로 가 버려…….
누나는 보지의 쾌감에만 집중해……, 웃…….

이거 봐…….
안쪽에서 계속 더 달라고 애액이 넘쳐 흘러……
기분 좋으면서……, 봐♡
아아……♡ 야한 소리 잔뜩 난다…….

하아, 하아…… 아…, 좋아…….
누나, 좋아……, 좋아해…….

팬찮아, 그대로 보지, 가도 돼……?
자아, 가, 가, 가, 가……!

……아~……, 잘 갔네…, …… 하아…….

너무 좋아…… 좋아해……. 음…….
(뜨겁고 끈적한 키스)

응... 으응..... 하아....., 싫어..... 안 그만해.
그치만..... 나 아직 안 갓는걸.....
좀만 더 힘낼 수 있지?

.....미안, 혀가 꼬여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아..... 눈물로 얼굴 축축해진 거 봐.....
그렇게나 기분 좋았어.....?
아니면 둘이 같이 가고 싶었어?

응....., 누나만 가게 해서 미안.....
다음엔 안에 듬뿍 내보내줄게♡

아하하
기빠서 더 눈물나?
음~~♡ (눈물을 흘린다)

하아....., 귀여워...... 얼굴 보면서 하고 싶어.....
서로 끌어안으면서 할까.....?

한 번 뽀뽀를 테니까..... 힘 빼., 웃......

(정상위 자세로)

응....., 자, 이쪽 향해서....., 정상위로.....
후우..... 이러면 서로 쳐다보면서 할 수 있지?♡

음.....? 왜 몸부림 쳐?
피곤해.....?
울고만 있으면 몰라......

.....아,뭔가.....
이러면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싫으니까.....
직접 보지 별리고..... 졸라봐.

응? 평생의 부탁이야.....,
음..... (조르듯이 키스)

.....하아.....♡
다행이다.....
우린 이미 같은 마음인걸.
억지로 할 리가 없지.
좋아..., 누나..... 좋아해.....♡

.....응....., 핫..., 음.....
(끈적하게 키스하며 삼입)

좋아... 좋아해...... 응, 음..... 좋아......

(밀착 정상위 자세로)

하아.....하아.....
젖꼭지도 빨아달라고 조르는 것 같아.....♡
으음.....

푸핫.
야한 목소리..... 계속 나오네.....
혀로 찌르면서..... 끝에 빨아주는 거 좋아하잖아......

아까 손가락으로 했던 것처럼.....
젖꼭지 밀어넣고..... 가슴 안쪽 혀로 휘저어주는 건 언제?
이렇게 꾸욱..... 하고 혀를 넣고..., 음.....

하아.....
아..... 이거, 조인다.....
기분 좋아... 웃.....

....., 아..... 안쪽 장난 아니게 빨아들여.....

.....아, 가...... 갈 것 같아.....
자궁으로 좀 더 쪽쪽 빨아줘.....?
.....앗, 기분 좋아..... 정액 올라와.....

누나도 허리 휘고 있어…… 웃,

음…… 허리 잡고 안쪽까지 세게 찌를게…….
간다…….

아…… 기분 좋아……, 가……, 갈 것 같아…….
누나……, 뜨거운 거 나와… 누나……,
내 아이 임신할 수 있게……,
정액 쭉우욱, 하고 잘 빨아줘…….

앗…… 안 돼……,
간다…… 나온다……, 나와나와나와나와, 나와……!

……웃, 아……, 진한 게…… 울컥울컥 쏟아져…….

누나, 이거 봐…… 소리…….
엄청 질퍽질퍽해…….

……누나……?
……저기, 듣고 있어?

……후…… 아하하.
아… 실신해버렸네…….
음……. (귓가에 키스)

웃…, 하아…….
정신을 잃고 있어도 보지는 경련하네…… 웃……
내 걸…… 전부 쥐어짜내고 있어……♡
응……♡ 하아…… 기분 좋아…… 경련하는 거 좋아……,
하음…… (귀핥기)
누나…, 좋아해…….
하아…… 키스하고 싶다…….

.....누나~..... 아직 의식 안 돌아왔어?

.....푸흐

입 살짝 열려 있네......

멋대로 혀..... 넣어버릴까....., 응..... (키스)

음....., 응..... 위험해......

자고 있는 누나를 범하는 것 같아서 흥분돼......

하아..... 음......

누나가 싫어하는 건 하기 싫지만.....

보지 움찔거리면서 기뻐하고 있으니까... 싫지 않은 거겠지......

아..., 누나....., 귀여워......

일어나면 제대로 눈 마주보고 키스하자. ...,

하아..... 그때까지는 여기.....

아랫입으로..... 잔뜩 키스할까.....?

음......

앞으로도 계속..... 계속 함께할 거야.

나만의 누나.....♡

END